



통합의료, 의료인과 정부에 바란다

이 성 재*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통합의학센터

What does integrative medicine mean to the physicia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ng Jae Lee, MD*

Center for Integrative Medicine, Korean University Medical Cente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Sung Jae Lee, E-mail: lee3676@korea.ac.kr

Received May 8, 2012 · Accepted May 18, 2012

Our aging society, rapid growth of diseases resulting from unhealthy habits, frequent occurrences of sickness, and variations in the awareness of health by patients, the worldwide need for integrative medicine, which means the incorporation and integra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into conventional medical systems, is growing rapidly. The most widely available forms of CAM in the treatment of diseases in the U.S. and Europe are acupuncture, chiropractic, phytomedicine (western herbal medicine), mind-body therapies, and nutrition therapy. The well-known hospitals in the U.S. and in Europe (e.g., Harvard,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Duke, Maryland, Essen, and Humboldt) are offering integrative medicine. The clinical practices as well as the education on CAM of medical schools is becoming more widespread in Korea. It is critical for us as physicians to be aware that the role of CAM is to support and complement conventional medicine, not to substitute for it. To manage chronic diseases effectively, it is imperative for physicians to incorporate and integrate Korean oriental medicine as well as CAM into the conventional medical systems. It is the duty of the medical universities and hospitals to integrate care delivery proven by CAM therapies into the conventional medicine and to develop the standard curriculum for integrative medicine at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To globalize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to scientifically prove the efficiency of CAM, the role of integrative medicine is critical.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to support the hospitals in which integrative medicine is systematically practiced and financially supported. In order to successfully accomplish integrative medicine in Korea, it is important to not only establish an integrative medicine center, but to also develop the contents and clinical pathway along with legal systems regarding integrative medicine with the support of the specialists in the field of integrative medicine.

Keywords: Integrative medicin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corporating and integrating medical systems; Physicians; Government

서 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암질환의 증가, 산업화로 인한 환경성질환의 증가, 현대 문명사회의 발달로 인한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의 달라진 요구와 수요는, 의료인들에게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정신적, 심적, 사회적 건강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차원으로까지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보완대체요법의 과학적 검증을 통하여 기존 의료 체계에 융합시키는 과정(통합의료)을 미국은 1990년,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197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독일이 “Science Pluralism”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이어서 영국, 프랑스, 호주 등과 같은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중 주로 예방, 건강증진, 만성질환의 관리 등을 위해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백악관에 보완대체요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Public Law를 제정하였고, 현재에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요법센터(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라는 기구를 두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연구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보완대체요법을 기존 의료체계에 융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1].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산파적 역할을 대한보완통합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산하 보완의학전문위원회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서, 2004년부터 활동한 학회는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통합의학(또는 보완의학) 교육(현재 37/41개 의과대학), “통합의학” 교과서 발행, 임상사들을 위한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통하여 통합의학적 진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3]. 또한 대한의사협회 지식향상위원회 산하 보완의학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알아야 할 보완대체요법 및 홍보전략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보완대체요법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활동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의학 담당 부서를 두고 2010년 대구경북 의료특구와 전라남도 장흥군에 통합의료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통합의료 추세에 부응하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통합의학의 정의

기존 의료체계에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보완대체요법을 편입하여 병행하는 의료를 통합의학이라고 칭하고 있다. 통합의료는 기존의 양·한방 협진 시스템 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개념으로 현대서양의료, 한방의료뿐 아니라,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보완대체요법을 선별하여 포함하고 있다. 통합의료는 환자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심적, 사회적 건강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치료, 환자중심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독일을 비롯한 유럽 병원들과 하버드, 존 홉킨스, UCLA, 조지 타운, 매릴랜드, 스탠포드, 듀크, 메모리얼 스론 케터링, 앤디 앤더슨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 대형 병원들이 통합의학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인과 통합의료

- 한의학 세계화, 보완대체요법 과학화 위한 현대의학 의료인의 역할

의료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의학의 장점을 병행하는 추세이다, 우리와 의료환경이 비슷한 중국에서도 “동·서 결합의” 제도가 있어 통합의료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38선 분계선과 같이 완전히 별개가 되어 분쟁과 불신이 극히 심한 유일한 국가이다. 역동적인 21세기에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바뀌고 있으나, 의료계에는 좀처럼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단기적으로는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이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나, 의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문화,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상호 공동 연구와 공조하는 체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한국의 의료가 우리 고유 전통의학인 한의학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보완대체요법의 과학화를 병행한다면 국내 의료가 국제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가 단순한 치료만이 아니라,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

방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환자의 수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선진의료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의학의 과학화 그리고 보완요법(또는 대체요법)의 지속적인 과학화(통합의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는 현대의학 전공 의료인의 관심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의학 의료인들의 역할은 부당한 치료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쓸데 없어요” 하는 식의 논리보다는, 왜 안 되는지, 어떤 때 도움이 되는지를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환자는 의사에게 더욱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취지의 의학이 바로 통합의료이며, 통합의료 영역은 어떤 의료선진국보다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한국이 발전시켜야 할 의료의 새로운 영역이다.

정부와 통합의료: 한의학 세계화, 보완대체요법 과학화 위해

1. 양·한방 협진 단계를 넘어, 미래는 통합의료 병원 구축

통합医료를 추구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기존 양·한방 협진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된 보완대체요법을 선별하여 병행하는 “통합의료 협진(양·한방 협진 + 보완대체요법)” 개념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 년간 부진한 양·한방 협진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야 한다.

1) 통합의료센터 시범병원 운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한 가지 안으로는 현재 일부 병원에서 어렵게 운영 중인 통합의학센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통합의료 협진 시범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1990년도 후반에 육성한 광역 별 응급의료센터 지원과 같은 형태이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를 지원했던 건물이나 장비 등의 하드웨어적 지원 방식이 아니라, 통합의료센터의 내용적 인프라 구축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병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한의학의 세계화와 보완대체요법의 과학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시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2) 의사, 한의사, 보완대체요법(기초의학)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의학연구원 같은 국가 연구기관 설립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한의학의 세계화, 보완대체요법의 과학화에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미국과 같이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산하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같은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무시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 민간요법을 하나씩 검증하여 국가의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다.

3)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전문 학회 연구지원

국가연구기관의 대안으로서는 전문학회인 대한보완통합의학회를 정부가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에 급증하는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전문 학회 인프라 활용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 보완대체요법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률적·제도적 마련

최근 법조계에서는 국내법이 정하는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도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인적 치료 또는 포괄적 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에게 보완대체요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 관심과 정책을 도모해야 할 시기이다. 의료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한국 현실에 맞는 통합의료 협진체계 구축,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임상연구, 보완대체요법의 과학화와 임상 적용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연구와 더불어 법률적·제도적 검토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 론

독일, 미국 등 의료선진국에서 개설하고 있는 통합의료는 의료인들간의 상호 불신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무관심 가운데 우리 고유의 의료자원을 뺏긴 격이다. 한의학의 세계

화, 보완대체요법의 과학화를 위해 의료인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대의학 의료인으로서 우리 한의학의 단점만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 상호 연구하는 자세, 그리고 보완대체요법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과학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양·한방의 협진을 넘어 보완대체요법의 과학화를 시도하는 통합의료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정부는 한의학의 세계화, 보완대체요법의 과학화를 위해 통합의료의 통합진료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 제도적 마련 등을 위해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의료의 방향과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시기이다.

핵심용어: 통합의료; 보완대체요법; 통합의료 협진시스템; 의사; 정부

REFERENCES

1.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ternet]. Bethesda (MD):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ited 2012 May 14]. Available from: <http://www.nccam.nih.gov>.
2. The Korean Society of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Integrative medicine. Seoul: Hanmibook; 2012.
3. The Korean Society of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Integrative medicine. Gyeonggi: Ihanbook; 2004.
4. Ernst E, Resch KL, Mills S, Hill R, Mitchell A, Willoughby M, White A. Complementary medicine: a definition. Br J Gen Pract 1995;45:506.